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寬 植

昌德宮 大造殿 群鶴圖 臨模硯究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繪 畫 科

傳統眞彩專攻

金 恩 瓊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寬 植

昌德宮 大造殿 群鶴圖 臨模硯究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繪 畫 科

傳統眞彩專攻

金 恩 瓊

金 恩瓊의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鄭 夏亨 (인)

審査委員 鄭 鍾基 (인)

審査委員 姜 寬植 (인)

- 目 次 -

I. 서론	1
- <군학도>의 의미와 연구목적	1
II. <군학도>의 내용과 의미	3
- 창덕궁 대조전 소장의 <군학도>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	3
III. <군학도> 임모 제작과정	5
1. 밑그림 제작	5
2. 색표제작	6
3. 비단염색하기와 재봉하기	7
4. 쟁틀 만들기과 비단매기	10
5. 교반수 칠하기	12
6. 상초	14
7. 채색	15
IV. 결론20	
- 임모제작 연구와 그 현대적 의미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4

I. 서 론

- 군학도의 의미와 연구목적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군학도에는 전통적 수법과 주제에 충실한 전통 진채화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상학경기(相鶴經記)에 의하면,

“학은 양(陽)의 새이다. 금기(金氣)에 인하여 화정(火精)에 의지하니, 화는 7이요, 금은 9이다. 16년에 적게 변하고, 60년에 크게 변한다. 1,100년에 모양이 넓어지고, 흰 색으로 된다. 2년에 잔털이 떨어져 검은 점으로 변하고, 3년에 머리가 붉게 변한다. 7년에 은하수를 치고 날며, 또 7년에 춤을 배우고, 다시 7년에 절도(節度)를 터득한다. 밤과 낮으로 12번 울며, 60년에 큰 털이 빠지고 못 털이 무성해진다. 색은 눈같이 희어서 진흙탕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는 학이 천년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경(詩經)>에도 학의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듯이 현인이 비록 숨어 살아도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으로 써여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보면, 옛 사람들은 학을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였고, 천년이상을 사는 장수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학 그림은 전통회화나 민화를 기릴 것 없이 현존하는 그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소나무에 앉거나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와 학수천세(鶴壽千歲)라는 말처럼 장수의 상징물로 많이 쓰였다

소나무 대신 바위를 그리기도 하는데, 장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다를 바가 없다.

군학도의 소재들은 십장생의 하나로서 상류계층의 세화와 축수용 그림과
도 뜻을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그림이라는 진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되며, 우리 민족의 예술성이 반영된 군학도
라는 소재는 우리의 것을 찾는데 필요한 것이며 전통진채를 연구하고 계
승시키는 계기가 된다.

II. <군학도>의 내용과 의미

-창덕궁 대조전 <군학도>, 건본채색, 197×579cm

왕후 정전이었던 창덕궁 대조전 안의 동서 벽면을 위해 그려진 일월서상도 중의 서벽 장식화인 이 <군학도>는 1920년에 그려졌다. 동벽의 일경인 봉황도(오 일영, 이 용우 합작)와 쌍을 이루는 정교한 묘선과 주채색의 전통적 궁전장식화로서 영원한 서기와 초자연의 생명감이 넘치는 이 화면은 이당 김 은호의 청년화가 시절의 탁월한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심전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에게서 전통화법을 폭넓게 수학하여 일찍부터 특히 세필채색화에서 천부적 재능을 발휘했던 이당에게 이 군학도 주제가 단독으로 맡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17년에 대조전이 큰 화재를 당한 후 이내 복원이 착수되어 내벽의 진채장식화 문제가 나왔을 때, 창덕궁 왕실은 화단의 신예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로 하여 당시 28세의 이당을 위시한 몇몇이 선정되었던 것이다.

전통적 수법과 고귀한 주제에 충실하며 특장의 채색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한 이 작품은 이당의 초기를 대표하는 역작이기도 하다.

화면 오른쪽 위의 천공에는 둥글고 흰 달이 서운과 더불어 등실 뜨

고, 그 밑으로는 창망한 바다가 펼쳐진다. 파도가 넘실대는 가까이에는 바위가 솟구친다. 그리고 화면을 반분하는 왼쪽의 육지에는 노송 청죽 암석 계류 불로초, 그 밖의 목단꽃 등이 섬세한 필선과 화사한 채색으로 그려진다. 앞서 같은 선경을 배경으로 바다의 멀리에서 적막을 가르며 육지로 날아드는 모두 열여섯 마리의 눈부신 백학 떼는 전체 화면에 고결한 생명감과 시원한 움직임의 이룬다. 그리고 그 백학들의 구도상의 조화와 움직임의 표정들은 작가의 빈틈없는 기량과 완벽한 회화성의 결합으로 더욱 장엄한 풍경을 창출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궁전 장식화로서의 이 백학 주제는 배경의 노송 등과 더불어 송령학수(宋令鶴壽)로 흔히 표현되는 장생불사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궁중 벽화로는 다른 5점과 더불어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전각의 기능과 연계되어 추락한 왕실의 안녕 및 권위의 회복, 왕실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길상(吉祥)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Ⅲ. 군학도 임모 제작과정

1. 밑그림 제작

- 준비물-

원화의 사진 : A3 크기 칼라복사

연필: Tombow H 연필

지우개: Maped 제도용 지우개-예리하게 잘 지워짐

트레이싱 페이퍼(Tracing paper) :원화사진 크기보다 약간 크게 준비

면장갑: 흰색이며 단추가 없는 것

라이트박스(Light box)

스카치테이프 : 3M 제품, 폭 1.6cm

(1) 원화와 사진을 확대 복사하여 도판사진을 준비한다. 임모제작에 앞서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와 세밀한 부분의 표현까지 눈에 익혀야 복잡하고 정교한 군학도의 구도를 이해할 수 있다.

(2) 준비한 원화의 사진을 A3크기로 축소한 사진을 준비한다. 라이트 박스위에 올려놓고 사방 모서리에 3M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고 고정시킨다.

(3) 선을 긋기 전에 연필을 예리하게 깎아놓는다. 필선을 원화의 안쪽으로 할 것인가 또는 바깥쪽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여 일정하게 드도록 한다.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의 기름이 트레이싱 페이퍼에 묻지 않도록 주의

하며, 오랜 시간 뜨게 되면 라이트박스의 열기로 트레이싱 페이퍼가 늘어나게 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해야 착오가 없다.

(4) 초 뜨기는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뜨는 것이 좋다.

초 뜨기를 할 때는 도판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시작해야 빠진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다. 생동감을 살려가며 두께감도 함께 표시한다.

2. 색표(色表) 제작

임모를 하기 전에 도판과 동일한 비단으로 각 부분들을 잘 관찰하여 도판과 비교하면서 색표를 제작한다.

교반수의 양도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같은 조명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색이 달라진다.

색이 정해지면 어떤 종류의 안료인지 적어둔다.

부분도를 제작하면 색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색감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안료의 두께감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임모에 앞서 석채를 올리는 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하여 다양한 색표를 제작하고, 세부표현과 채색을 고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3. 비단 염색하기와 재봉하기

-준비물-

비단: 오간자 2합 2마를 작품크기보다 여유있게 준비,

원화작품과 유사한 울의 굵기로 직조된 것을 선택

(광장시장 현우실크 02)266-0169, 1마 8,000원)

오리나무열매 : 옛 그림의 느낌이 나도록 비단을 염색하는 재료

(경동시장 경동약초 02)962-6665, 1근 3,000원)

탄산칼륨: K_2CO_3 (종로3가 의료기상사, 100g 5,000원)

리트머스 종이 : 염색한 비단의 매염제 및 PH의 농도 측정

(종로3가 의료기상사 한봉지 4,500원)

양동이: 스테인레스 재질의 20L들이 (시장에서 구입, 1개 16,000원)

염색통: 비단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의 통, 싱크대의 개수구도 사용 가능

핫플레이트(Hot plate): 온도조절이 가능한 1구용(전열기 상점, 1개 30,000원)

고무장갑, 빨랫줄, 염색주머니, 가위, 줄자, 신문지

1)비단 자르기

비단은 원화의 크기(30.5X90cm)보다 사방 5cm 여유가 있게 준비한다.

비단을 자를 때에는 자르고자 하는 곳의 울을 2올 정도 빼내어 울이 빠진 자국을 따라 가위로 자르면 반듯하게 잘라지며 비단의 불필요한 유실을 막을 수가 있어 편리하다.

2)비단 염색하기

(1)비단을 원화의 색과 비슷하게 하기위해 염색을 한다.

오리나무 열매 600g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 염색주머니에 넣고 물 10L를 양동이에 부어 짙은 갈색물이 나올 때까지 끓이고 염색주머니를 건져낸다.

(2)염색통에 오리나무 열매를 끓인 염색물을 붓고 찬물 4L를 넣고 희석하고 염색물의 온도는 60도로 유지하면서 원화와 비슷한 색을 맞춘다. 이때 색의 정도를 정확하게 보기위해서 비단조각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3)준비한 비단의 아랫부분부터 천천히 염색통에 넣으면서 염색해야 고르게 염색이 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끼고 비단을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차례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물이 뜨거우면 염색은 잘되지만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물의 온도를 60도 정도로 유지한다.

(4)염색된 비단을 빨랫줄에 끝부분만 조금 걸쳐 집게로 접어 걸고, 잘 펴서 공기가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5)염색통에 찬물 10L를 붓고 탄산칼륨을 넣어 염료를 정착시킨다. 탄산칼륨의 양은 리트머스 종지로 PH를 측정하여 정하는데 보통 PH8~9정도가 적당하다.

(PH가 낮을수록 정착이 적게 되고, PH가 높을수록 정착이 많이 되어 색감은 진해지지만 채도가 떨어진다.)

약 10~15분 정도 담가두면서 염색할 때와 같이 반복하여 문질러준다.

색감을 보아 비슷하게 되면 흐르는 물에 2회 정도 행구어낸다.

(6)염색된 비단의 양끝 모서리를 빨랫줄에 걸쳐 접어 집게로 고정시켜 팽팽하게 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3)비단 재봉하기

-준비물-

광목천: 얇은 광목천, 또는 T/C천을 사용

(시장 포목점 광목1마 : 2,500원, T/C천 1마: 8,000원)

실: 100% 면사준비 (면사 1타래: 2,000원)

쪽가위 (1개: 500원)

재봉틀, 다리미, 가위

(1)광목천의 폭을 7cm로 자르고, 길이는 비단의 세로길이보다 10cm정도로 길게 하여 4개를 준비한다. 각 4개의 광목천을 세 번 접어서 다림질해 놓으면 박음질할 때에 편리하다.

(2)염색하여 건조시킨 비단의 모서리를 잘 펴서 광목천을 바이어스(Bias)한다.

비단의 앞면과 뒷면을 두 번 박음질하는 것이 견고하다.

(3)박음질의 순서는 양쪽 세로 방향끼리 먼저 하고, 가로 방향끼리 하는 것이 재봉하기 편리하다. 사방의 끝은 여러 차례 되돌아 박기로 하여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바느질 한다.

4. 쟁틀 만들기와 비단매기

1) 쟁틀 만들기

-준비물-

나왕목: 나뭇결 방향으로 깨끗하게 잘린 튼튼한 나왕목을 사용한다.

(목재상에서 구입, 2m 8,000원)

목공용 톱, 망치, 나사못, 직각자, 줄자, 연필, 풀

(1)쟁틀의 크기는 비단에 교반수를 칠할 때 늘어나는 정도와 각목의 두께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대략 재봉을 한 면의 크기에서 사방으로 20cm의 여유분을 두어 준비한다.

(2)각목의 모서리를 사포로 갈아 부드럽게 하고, 양끝을 5cm씩 표시하고 각목 폭의 반만큼 홈을 직각이 되게 그린다. 직각을 잘 맞추어 톱질하고 끝을 이용해 깨끗이 파낸 다음 직각의 홈에 맞추어 끼운 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2)비단매기

-준비물-

재봉한 비단, 쟁틀, 돗바늘, 굵은 면실

(시장의 포목점에서 구입, 돗바늘 1개: 500원, 면실1타래:2,000원)

스테인레스 봉: 지름 0.7cm (을지로 상가에서 구입, 도는 가까운 철물점 1개: 1,500원)

가위, 압정, 줄자, 연필, 벽돌, 니퍼(nipper, 선재를 자를 때 사용하는 공구)

(1)깨끗한 바닥에 만들어놓은 쟁틀을 놓고, 재봉해 놓은 비단을 틀 안에 놓는다. 이 때, 틀 아래의 가장자리에 벽돌을 받쳐 놓아야 바늘이 드나들기 편하다.

(2)봉은 쟁틀의 크기에 맞게 니퍼로 자르고 봉의 양끝을 사포로 문질러 비단과 손을 상하지 않게 한 후 재봉한 광목천 사이로 봉을 끼워 넣는데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넣는다.

(3)쟁틀의 가운데에 비단이 놓여지게 맞추어야 틀 방향이 바르게 되어 비단을 잡아당길 수 있다. 비단의 폭과 길이의 전체를 2등분, 4등분, 6등분하여 돛바늘이 통과할 자리를 표시해둔다.

(4)면실의 길이는 쟁틀 길이의 3~4배 정도로 넉넉히 여유분을 두어 준비한다.

(5)돛바늘에 면실을 끼우고 표시해 둔 돛바늘의 통과지점을 따라 비단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매어간다. 비단의 끝까지 맨 후, 실이 지나온 방향과 같은 방향에 매듭을 고리로 만들어 쟁틀에 압정으로 고정시켜야 교반수를 칠할 때 실을 풀어 비단을 당길 때 편리하다.

(6)틀을 땔 때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게 해야 하고, 틀의 양쪽 여유공간이 같도록 하며, 스테인레스 봉이 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겨준다.

5. 교반수 칠하기

-준비물-

아교 (인사동의 모든 화방에서 구입 가능, 1봉지:10,000원)

정제된 백반 (일반 약국의 명반이 아닌 화방의 정제된 것을 사용,
1봉지:2,000원)

사기유발 (인사동 화방, 또는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 작은것:5,000원)

비이커 500ml, 100ml (의료기 상사 500ml :5,500원 100ml:3,500원)

전자저울 :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전자저울 사용 (1개: 10,000원)

유리막대

평붓:털이 잘 빠지지 않는 것으로 선택 (인사동 한지마트 02)722-2222,
양모5호 평붓1개:12,000원)

편셋 : 비단에서 먼지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날카로운 것으로 구입
쇠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용
(그림에 반점이 남는 현상이 생김)

사기그릇(면기), 랩, 거즈, 냄비, 핫플레이트, 받침용 벽돌

(1)교반수의 농도는 3%로 하고, 백반은 아교의 1/10을 넣는다.

아교를 준비할 때는 하루 전에 물에 불려 놓아야 사용하기 편리하고,
백반은 유발에 곱게 갈아 놓아서 사용한다.

(2)불린 아교는 중탕을 하여 녹이고, 곱게 갈은 백반은 차가운 물에 녹인다. 뜨거운 물에 녹이면 필요한 요소가 사라지며 번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3)아교와 백반을 큰 그릇에 담을 때 거즈로 불순물을 걸러준다.

교반수는 미지근한 정도의 체온36.5도에서 점착력이 가장 좋으므로 온도를 잘 맞추어 사용한다.

(4)쟁틀에 교반수를 칠할 때 비단이 늘어져 바닥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틀 아래에 벽돌을 받쳐 놓는다.

(5)깨끗한 교반수용 평붓에 교반수가 흘러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묻혀서 비단에 칠하는데 비단의 폭 방향으로 교반수가 고이지 않게 붓끝으로 칠한다. 앞면을 1회 칠하고 약간 건조한 뒤 뒷면을 1회 칠하며 이 과정을 올이 막힐 정도가 되도록 2회 정도 반복한다.

(6)교반수를 칠 할 때마다 아교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핀셋으로 먼지를 제거해야 초를 뜰때 매끄러운 선을 그을 수 있다.

(7)마지막으로 교반수 1%를 만들어 비단의 앞면만 1회 칠해 주어야 상초(上草)할 때에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선을 잘 그을 수 있다.

(8)완전히 건조한 후 비단을 손으로 두드려보아 북소리가 나거나 여백에 붓으로 선염을 해보아 번짐이 없으면 교반수가 잘 된 것이다.

교반수가 두텁게 올라가면 채색이 어두워지고 그림이 완성된 뒤에 너무 반짝거리게 된다.

(9)교반수를 사용할 때, 교반수가 남아있는 그릇을 들 때는 랩으로 씌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6. 상초(上草)

-준비물-

먹: 고매원 5성 (작은 것 1개:30,000원)

벼루: 단계연 벼루 (소형 1개:45,000원)

붓: 면상필, 2,3호 (인사동 한지마트 02)722-2222,

면상필2호 5,000원, 면상필3호 8,000원)

사진도판 확대복사: 원화크기 컬러복사

(충무로 정우공사 02)2268-7001, A3 1장 3,000원)

합판: 그림크기에 맞게 가까운 목재상에서 주문제작

물통, 접시, 수건, 흰색면장갑, 면천, 쟁반, 집게, 담요, 스카치테이프

(1)연필로 뜯은 초를 다시 한번 원화와 비교하며 수정, 보완한 후, 작품의 크기에 맞게 복사한다.

(2)면상필을 다양한 굵기로 준비하여 손에 익숙한 붓을 선택하며, 반복적으로 선 연습을 한 후에 손이 익숙할 때 상초를 뜨는 것이 좋다.

(3)비단에 초를 뜯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가되 흰색 면장갑을 끼어 손의 땀과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게 한다. 초본에 너무 얇매여 경직된 필선이 나오지 않게 자연스럽게 긋는다.

(4)비단의 폭보다 길고 두꺼운 합판을 준비하여 쟁틀위에 올려놓고, 담

요를 깔고 그 위에 앉아 그리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힘이 덜 든다. 또한 재료쟁반을 준비하여 먹, 붓, 물통, 접시 등 필요한 것을 담아 놓으면 상초를 뜨며 이동할 때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먹 선염하기

먹 선염은 깊이감을 더해주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효과를 준다. 소나무 잎의 덩어리, 바위의 음영, 바다의 물결에서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의 사이, 학의 꼬리부분, 소나무 껍질의 농담차이를 주어 덩어리감이 느껴지도록 선염한다.

7. 채색(彩色)

-준비물-

아교액 : 비이커에 물 100ml, 알아교 10g을 불려서 중탕

막대스푼 (시장의 주방기구 상점 1개: 1,000원)

채색붓 : 큰것, 중간것, 작은것 각 6자루(인사동 서예백화점 02)739-9500, 1개: 2,500~4,000원)

석채 : 주(朱) 2번 15g, 석록 1번 30g, 석청 30g

(인사동 서예백화점 02)739-9500, 주사1g:250원, 석록1g:330원, 석청1g:450원)

봉채 : 연지, 등황, 쪽, 대자 각1개 (인사동 서예백화점 각10,000원)

핫플레이트, 물통, 면수건, 면봉, 채색접시, 색표

1)물감사용법

(1)채색의 순서

기본적으로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데 전체적으로 색의 톤과 분위기를 내고 세부묘사를 한다. 채색할 때는 접시와 채색 붓을 색깔별로 쓸 수 있게 여러 개를 준비하여 색이 혼색되어 탁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2)석채사용법

채색 접시에 적당량의 석채를 덜어 놓는다.

아교를 조금씩 넣어가며 석채입자에 하나하나 골고루 아교액이 입혀지도록 손가락으로 퍼준다. 이 때 아교액의 양이 많으면 물감과 아교가 따로 놀며 채색을 할 때에도 고루 색이 올라가지 않으며 물감이 고착이 잘 안되어 떨어지기도 한다.

물을 조금씩 넣어 골고루 섞이도록 손가락으로 퍼주면서 겉 뒤에 접시 한쪽을 기울여 붓으로 가라앉은 석채의 적당량을 그릇 위쪽으로 끌어올려 석채농도와 아교액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여 필요한 양만큼 사용한다.

쓰고 남은 석채는 뜨거운 물을 부어 아교를 제거하고 말려서 다음에 다시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3)봉채사용법

접시에 물을 한 두 방울 넣고 봉채를 먹을 갈 듯이 돌려가며 갈아준다.

이때에 봉채에 물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봉채의 부서짐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알맞은 색이 나올 만큼 물을 조금 더 넣어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 준다.

봉채는 수비, 즉 걸러서 사용하는 것이 맑은 색을 낼 때에 좋다.

(4)호분 개는 법

호분을 유발에 사용할 만큼의 양을 넣고 갈아준다.

곱게 갈아놓은 호분에 아교액을 조금씩 넣어 약간 되직하게 갈아준다. 이때 오래 갈아 줄수록 채색할 때에 선명하게 잘 나온다.

접시에 호분1: 아교액2: 물4 의 비율로 넣어 여러 차례 문지르며 혼합 후 가라앉혀 아래의 거친 입자는 두고, 위에 뜬 물인 맑은 호분 물을 다른 접시에 털어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거친 것과 고운 것을 각각 사용한다.

2) <군학도>의 채색(彩色)방법

(1) 소나무

소나무는 줄기의 음영부분과 잎이 시작되는 부분을 먹으로 선염한다.

소나무 가지부분은 대자색으로 입체감이 나도록 단계를 내어 여러 번 칠해준다.

소나무의 잎은 석록으로 초를 뜰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잎을 하나하나 가늘게 그려준다.

다시 진한 먹 선으로 석록 잎 선의 옆쪽으로 소나무 잎을 하나하나 그려준다.

소나무의 이끼부분은 석청, 석록으로 이끼의 테두리는 고운 호분으로 채색하고 마른 후에 석록으로 점을 찍듯이 칠해준다.

(2)바위

대자색으로 바위를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게 채색한다. 도판을 보면서 석록으로 칠할 부분을 살짝 채색한다. 단계적으로 느낌이 나게 석록을 칠한 곳이 마른 후에 진하게 보일 부분만 채색한다. 마지막으로 석청을 채색한다.

자연스럽게 분염(分染)을 하면서 바위의 색과 전체적인 그림의 조화를 맞춘다.

(3)물결

전체적으로 물결이 표현되도록 대자색으로 단계를 주어 파도치는 물결을 채색한다.

물결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의 차이를 색의 연하고 진한 차이로 두어

단계를 주면서 깊이감이 나게 표현한다.

(4)파도

뒤에서 호분으로 배채(背彩)를 해준다.

수비하여 남은 것으로 배채를 하고, 고운 호분으로 앞부분을 칠한다.

맨 윗부분을 진하게 하고, 물결과 닿는 부분을 그라데이션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5)하늘

바다와 하늘이 전체적으로 대자색 느낌의 저녁하늘 그림이므로 하늘과 바다색이 어울리게 대자색을 단계적으로 칠해준다.

(6)구름과 달

구름은 덩어리감을 살리고 흐름과 변화를 잘 나타내도록 한다.

구름은 호분으로 배채를 하고 앞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호분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달도 역시 호분으로 배채를 하고 앞면에서는 고운 호분으로 둘레를 그려주며, 너 무 밋밋하지 않게 달의 내부를 자연스럽게 채색한다.

(7)학

학의 목 부분과 꼬리부분을 먹으로 얹게 채색한 후에 호분으로 두 번 정도 배채를 하고, 앞에서 다시 깃털을 표현할 곳을 진하게 호분으로 깃털 하나하나를 그려준다.

IV. 결 론

임모제작 연구와 그 현대적 의미

현대의 국제화시대는 문화의 교류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물밀 듯 밀려오는 서양의 감각은 어느새 우리의 시각에 친근하게 되었다.

자칫 전통적 고유성의 상실을 초래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것을 찾고 전통진채화의 임모를 하면서 전통색의 느낌을 배우고, 우리만의 정서가 담긴 독특한 채색화를 표현함으로써 현대 한국 채색화의 국면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모는 단순히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닌 기초적인 전통회화의 학습이다. 우선 기초적인 전통회화 학습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모제작의 작업 연구과정을 토대로 현대의 창작회화에 적용시켜 다양한 표현기법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것에 대한 이해, 우리의 전통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각 재료의 특징을 및 사용법을 이해한 후, 많은 실험과 기법을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통 채색화의 체계화된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훌륭한 문화인 전통진채를 현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계승하는 일이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參考文獻

論文 및 著書

姜寬植, 中國 山水畫史 要論, 1895.

高貞漢, 傳統繪畫에 사용된 天然材料 研究, 1999.

書 論

清, 王 概, 王 蓍, 王 昶, 芥子園畫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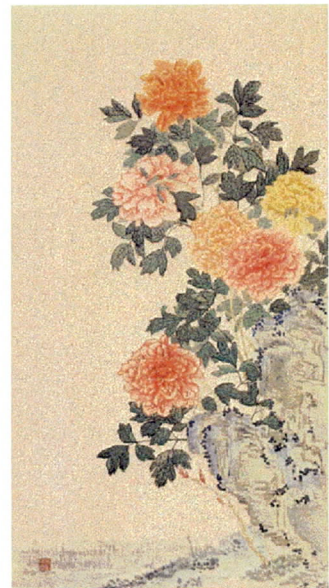
中國花鳥畫의 描法, 마효, 운림당, 1985.

芥子園畫譜全集, 文化畫書, 1990.

中國繪畫理論史, 갈로, 姜寬植 譯, 미진사, 1997



국 화
60 × 95cm, 실크에 채색



모란
30 × 55.5cm, 견지에 채색



군화도
174×64cm, 견지이에 채색

ABSTRACT

A study on making a reproductions of "Changduckpalace Daejojun <Kunhakdo>"

Kim Eun-Kyung

Major in Traditional True colored painting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raditional paintings requires lots of time and effort to learn adequately. Addition, traditional "jinchae" is the most important understanding on color materials of adhesives.

Traditional paintings are impressed, it is an impractical and idealistic space of imagination, it also implies the meaning of a lucky and overcome the given life.

Producing process is consist of, the coloring produce, of silk dyeing, the making of frame, the binding of silk, the pasting of alum stone glue, draw the line practice, paint in colors.

Traditional paintings have deeper, painted harmonize the special quality peculiar to the natural materials and the proper usage of the creative technique of expression.

The learns of this research on the copy are firstly to summarize the historical background, secondly to seek the specific work process and the direction of troditional "Jinchae" by copy "Changduck palace Daejojun <Kunhakdo>".